

전북산 농산물 대형 유통업체 통한 판로 기대

전북자치도,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지난해 협약 맺은 뒤 지속 소통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회원사 통해 2000억원 판매 목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를 통해 올해 도내 신선농산물 2천억원 판매를 목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주목된다.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는 지난 1978년 정부지정 의회발족으로 (사)한국수퍼체인협회 명칭으로 처음 설립해 1999년 현재의 협회 명칭으로 개칭돼 운영 중인 단체로 한국의 체인 스토어 관련 기업(정회원 16개사)들이 모여 협력하고 업계의 이슈를 다루며 유통기업을 전후방으로 지원하고 있는 법인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농산물 유통협력 관계

어협회는 지난해 11월 농수축산물의 유통활성화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맺은 뒤 실무협의체를 구성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간담회에 산지조직 실무자를 참여시켜 협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논의를 벌여왔다.

이처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동안 협회 회원사인 '홈플러스'에 진입하지 못했던 전북자치도 생산 농산물이 로컬푸드관 개설 등을 통해 판매될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함께 (사)체인스토어협회의 농산물 유통협력 관계

를 더욱 견고히 하고 협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광역브랜드 '예담채'를 활용한 광역마케팅으로 빅3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형유통사에 원예농산물별 출하시기에 맞춘 판촉행사를 8차례 추진, 이를 통해 원예농산물 2천억원의 매출 목표액을 증액 설정(23년 실적 1,773억원)하고 공격적인 판촉행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내 홈플러스 매장 내 로컬푸드관을 설치해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가능토록 협의 체계를 구축, 최소 1~2개소의 로컬푸드관을 개설하기로 했다. 로컬푸드관 개설은 도내 새로운 신유통 채널 발굴로 농업인 매출 확대

를 위한 직접봉로의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

농수산물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MD 초청을 통한 품평회 등을 실시해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회원사 중 온라인 채널을 운영 중인 '쓱닷컴'(이마트 온라인몰) 등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 기획전을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신선농산물 이외의 가공 품목 등에 대해서도 마케팅 영역을 확장시켜 채널별 판로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의 명성에 걸맞게, (사)한국체인스토어와의 긴밀한 협업을 강화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농특산물의 공급망을 안정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소래축산과 '우리맛답' 씨담 보급 등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가금연구소(강원 평창군)에서 맺었다고 밝혔다.

'우리맛답' 씨담 민간 보급 기반 확충

국립축산과학원·소래축산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은 소래축산(대표 김연수)과 '우리맛답' 씨담(종계) 보급 및 품종 개발 기술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7일 가금연구소(강원도 평창군)에서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맛답' 등 연구 개발 품종의 보급을 확대하고, 토종닭 산업 분야 현안 해결에 상호 협력할 것과 기술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연구 관련 시설, 장비, 기술, 자원의 공동 활용 △연구 인력과 육종 기술 교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소래축산은 품종 개발에 필요한 순계 자원과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자체 개발한 토종닭 품종과 '우리맛답' 등을 사육·가공·판매하며 토종닭 산업을 이끌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앞서 2022년 12월 (주)한협원종과

'우리맛답' 보급 체계 개선과 품종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에 소래축산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우리맛답' 등 연구 개발 품종의 민간 보급 기반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민간에서 보유한 토종닭 순계 자원을 활용한 품종 개발 등 민간 연구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3월 말까지 민간 종계장 2개소에 '우리맛답' 원종계 공급을 완료하고 6월부터 농가에 씨담을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 수요조사 일정 등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소래축산 김연수 대표는 "두 기관이 보유한 순계 자원을 활용하고 사육·개량 기술을 교류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국산 닭 품종 개발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남원농협, 212개 영농회별 영농 설계 교육 추진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관내 212개 영농회별 마을회관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운영공개 및 올해의 중점 추진사업을 홍보하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의 중점 사업에는 농촌인력 증대센터 운영 및 여성대학 개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교육에서는 지난해 발병률이 높았던 벼 깨씨무늬병 예방 기술 및 신종충 침입 벼 재배 기술, 병해충을 예방하는 벼 드문모심기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영농생산비 절감을 도모하였다.

남원농협은 최근 농업중앙회에서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평가해 시상하는 2023년 종합업적 평가에서 우수농협에 선정됐으며, 2022년~2023년 2년 연속 지도사업 종합평가 전국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었다.

한편 박기열 조합장은 "조합원님의 많은 참석 및 고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남원농협에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민연금, 2023년 기금 운용수익률 13.59% 역대 최고

기금 적립금 1000조원 사상 첫 돌파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1,086조원, 수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잠정)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이 설치된 1988년부터 기금 투자를 통해 조성된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전체 기금적립금의 절반 이상(56.8%)이 운용수익으로 채워졌다.

지난해 초 세계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도 국내외 증시와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양호한 연간 수익률

을 이뤘었다.

자산별로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로 나타났다.

국내 및 해외주식은 미국 은행권 위기와 중동 지정학적 위험 등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부각됐으나, 개별기업 실적 호조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인플레이션 둔화에 의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종료 및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투자자산은 자신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도 양의 수익률에 기여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세계 투자환경은 지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운용전문성 강화 등으로 기금적립금 1천조원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기금운용 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7일 정읍시에 소재한 정읍애육원을 찾아 청소년 교육환경개선 지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시설로 70여년 오랜 세월동안 지역아동복지에 앞장 선 기관이며, 전달된 기금을 노후화된 학습용 컴퓨터를 교체하여 아이들이 IT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따뜻한 봄이 다가올수록 청소년들은 더욱 외로움을 느끼기에 이들에게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사회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환경청, 통합관리사업장 현장 컨설팅 실시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통합허가를 받은 전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법정 정기감사에 앞서 통합허가 내용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용받게 되는 허가조건 준수 요령, 방지시설 적정 운영방법 등을 안내해 사업장별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환경법령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전북권에서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 72개소 중 지난해 신규 통합허가를 받은 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환경청 담당인력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된 전북지방환경청의 맞춤형 컨설팅은 매년 컨설팅을 받은 신규 사업장의 위반율을 감소시켜 기업 지원과 함께 환경법령 위반 방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컨설팅과 함께 환경관리 현장의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해 제도개선과 사업장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소병훈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